



＋ 설날 가정 예배 ＋

인도자

.....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552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시 18:1~6	인	도	자	
설 교	기회로 삼는 우리가정	인	도	자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족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정상적인 만남도 갖지 못하고 참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는 또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늘 위기가 존재합니다. 설날을 맞아 우리는 한 해 평안하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원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늘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사울의 추격, 이방 국가와의 전쟁, 아들의 반란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반복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성장합니다. 사실 똑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가는 바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난 중에 더욱 성장 할 수 있었을까요? 올해 우리에게 찾아올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합니다.

둘째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흔히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일상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히 13:8). 이처럼 영원하고 불가능이 없으며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다윗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맹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린 다윗은 맹수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강한 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올해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온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2절).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가 피할 곳은 바위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바위틈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전쟁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 중에 원치 않는 살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죄책감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씻어주는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자 요새이셨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와 안기십시오. 그분이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죄책감이 밀려들 때 구원의 주님께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요일 1:9). 주님께 무엇이든지 아뢰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탑 높이 쌓아 흠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도성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을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유목민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적떼의 위협과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광야 속에서 유목민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쌓은 산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입니다. 유목민은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또한 한 부족이 공격당하

면 연대하여 함께 전쟁을 합니다. 나도 언제 나그네가 될지 모르고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편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려던 다윗을 지혜롭게 말린 아비가일도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다윗을 지킨 용사들도 있습니다.

올해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부르짖음”입니다(6절).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멀리 있거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올해 우리 가족에게 평탄한 길이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생에 늘 존재합니다. 이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도	인	도	자
찬	송	384장
폐	회	주기도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은교회

의정부시 오목로 91번길 45-10 (부용초교 뒤편)

☎ 852-1009, 0691

홈페이지 - www.sechurch.kr